



위기의 끝은 있는가?

김현회 원칸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

유사한 자극이 반복되면 감각은 무뎠진다.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쾌락의 도를 점점 더 높여 간다. 고난이나 위기 역시 자주 재연되면 그 느낌이 둔감해진다. 그러다 보면 극심한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. 이번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세계 경제 위기 역시 우리가 이미 겪은 IMF 위기,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등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. 물론 수 차례의 위기에서 얻은 교훈 덕에 벌써 탈출 비책을 마련하였다면 다행이다. 그렇지 않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서두를 일이다.

(2011년 8월~ 2011년 9월 자재 동향)

자재 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월 STS관 BASE 인하 예정 - 9월 강관 추석 이후 인상 전망 - 9월 동관 LME시세 인하 예정 - 주철 일부 제조사 5%~10% 인상 예정 - 추석 이후 동관 물량 일시적 품귀 예상
강관 및 관련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요 부진으로 일부 대리점 대폭 인하된 네고율 적용 - 9월 추석 이후 제강사에서 대리점 네고율 큰 폭으로 인상 가능성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. 추석 이후 단가를 예의주시해야 함
동관 및 관련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월 LME 시세는 411원 인상된 10,470원으로 확정 - 런던금속거래소(LME)의 전기동은 경제회복 둔화 우려감 속에 달러 약세와 취약한 경제 전망 등에 압박 받으며 하락세를 보임 - 9월 동관 LME시세는 200원~400원 인하 예정
STS관 및 관련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월 STS관 BASE는 150원 인상 - 스크랩 재고 물량 증가, 수출 물량 감소 - 월초 톤 당 25,000불이었던 니켈 단가가 현재 톤당 21,000불을 유지하고 있어 9월 STS관 BASE는 약 100~200원 인하 예상
구매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금 회전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일부 판매점들이 네고율을 대폭 낮춰 영업하고 있으므로 투입 물량을 모아 다양하게 견적 후 입고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

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후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

	이슈	판단
세계 경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• 달러화 가치 및 국제금리 전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기 가능성은 낮으나 금융불안 지속 • 중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, 금리상승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국경제 더블딥 가능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더블딥 가능성은 낮으나 성장세둔화(연간 1.5~1.8%)
한국 경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0.2~0.3%p 하락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• 국내 금융변수 전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기재발 가능성은 낮으나 변동성 확대 • 원/달러 환율 : 하반기 평균 1,040원

(자료:삼성경제연구소, 2011.8)

우리는 이미 IMF 위기, 2008년 금융 위기 등을 겪었고 그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. 그런데 몸 추스를 겨를도 없이 이번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다. 세계 최상위 신용 등급을 유지해 온 미국이 자국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지위를 강등 당했다. 이는 미국 재정의 심각성을 말해 주는 것이고, 바로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다. 극심한 불안 상태가 이어지며 각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다. 하지만 그 위기의 근원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위기가 조기에 사라질 수도 없는 것이기에 사태가 심각하다.

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나 미국의 더블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. 하지만 2008년 시작된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분위기에 무참히 찬 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. 요컨대 급격한 위기는 없을지라도, 지금보다 좋아질 일도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. 아니, 소소

한 위기와 불안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.

그럼 조금만 버티면 좋아질 것이라고 그동안 허리띠 졸라 매고 빛 내서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? 이 상태로 몇 년이고 더 버틸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. 남들이 보지 못한 틈새 시장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시시하다고 무시했던 일들에라도 다시 한번 눈 길을 줄 때이다. 교통이 두절된 산 속 움막에서 눈보라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, 눈보라가 예상보다 두 세배 더 길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? ●



김현회(金炫會) 총괄본부장

- 現 원컨네트웍스 사업본부장
-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
- 삼성그룹 디자인연구소 및 UCLA Extension 수료(멀티미디어 부문)

- 삼성화재 홍보, 시장개발, 인터넷 사업 담당(사보, 사장단 연설문, 방송PD, 보도자료, 인터넷 기획, 전국 애니카랜드망 구축 등 담당)